



위기의식

갑판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유정 굴착 장치의 갑판 위에 서 있다. 선장이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 내려” 하고 고함을 친다. 하지만 고함 소리를 듣고 바다 속으로 뛰어 내리는 갑판원은 없다. 바다 속에는 상어가 특실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장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갑판에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 어떻게? 선장이 소리를 치지 않아도 너도나도 앞 다투어 물속으로 뛰어 들 것이다. 물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벌리고 사람을 노리는 상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타는 갑판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 내릴 수밖에 없다.

변화는 물속으로 뛰어 내리라는 고탈 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때 시작된다. 리더의 첫 번째 임무는 배에서 실제 화염이 솟아져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임직원들이 갑판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뜻한다. 장밋빛 안경을 벗어 던지고 현실을 냉철하고 잔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한 자만하다간 금방 위기에 처하



천길 절벽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는 것이 인간사회 법칙이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둔감하여 방심하다가 나락에 떨어졌다. 위기를 감조하면 직원들이 움직리라고 겁을 먹는 경영자들이 있는데, 일상화되면 경쟁력이 된다. 그것이 초일류 기업의 요건이다.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기업의 추락을 지켜보며 새겨야 할 경구이다.

닛산을 부활시킨 카를로스 곤 역시 “회사가 위기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성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감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위기의식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개인, 회사, 국가 등 유기적 생명체는 위기의식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된다는 강력한 위기를 만들어 전파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

건이라 할 수 있다.

위기가 일상화되면 자포자기적 심정에 회사를 떠나거나 흔들리는 직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적당한 선에서 멈춰버리면 그저 그런 적당한 기업에 머물러 있게 된다. 잘 나갈 때일수록 없는 위기라도 만들어 이를 전파함으로써 전 직원이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도 푹푹 뭉쳐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이다.

진정 위대한 지휘관은 어떻게든 눈앞의 난관을 극복해야 함을 기억하라. 불타는 갑판은 단지 극복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일 뿐이다. 장비부족, 인력부족 등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남으로써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이다.

리더에 대한 기대감은 위기극면에서 고조된다.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조직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리더이다. 그런 점에서 리더에게 있어 위기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절체절명의 기회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왜 죽는가? Why does men die? 人はなぜ死ぬのか?

·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은 비양심적인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Men grow old and die, because men act according to conscienceless desires.

人が老いて死ぬのは非良心的な欲によって行動するからです.

· 누구나 양심과 비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양심이 바로 죽음의 원인이다.

Everyone has both a conscience-full(the good) and conscience-less(evil) mind, and the conscience-less mind is the cause of death.

誰でも良心と非良心を持っているが、その非良心が死の原因です.

· 비양심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즉 욕심이다.

The conscienceless mind is the self-centered mind, that is, desire.

非良心は自己中心的な心, 即ち, 欲です.

· 이와 반대로 양심은 자기 희생의 마음이다.

On the contrary, conscience is a self-sacrificing spirit.

これとは反対に良心は犠牲の心です.

·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어온 것은 누구도 죽음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의식(에고)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So far, everyone has died, because no one removed the cause of death, that is, ego.

今まで人びとが死んで来たことは誰も死の原因が「私」という意識(エゴ)であ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からです.*

속담 속의 영생학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은 서양에서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로도 유명하다. 수고 없이는 보상이 없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땀 흘려 일하고 정성을 다하였을 때 자신이 목표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인생의 참 진리의 격언이다. 승리제단의 이긴자께서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가 썩어서 죽는다고 하셨다. 피는 욕심 때문에 썩고 욕심은 바로 나라의 의식이 욕심을 부린 것이며, 초초로 나라의 의식이 욕심을 부려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피를 썩게 한 원인인 죄만 해결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무궁토록 시공간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영생체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죄에 갇힌 사람이 죄를 완전히 벗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단순히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긴자께서는 나라의 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율법을 선포하시

고 그 자유율법을 실천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승리제단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셨다. 자유율법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며, 반대생활, 희생적인 생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며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생활을 초초로 실천하는 율법이다. 마음의 원리, 마음의 과학을 실천해야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초초로 나를 이기기는 힘들지만 진정한 고생 끝에 영생의 낙이 오는 것이다. 나를 이기는 생활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반대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해야 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해야 하는 반대 생활(극기의 생활)을 해야 승리한 하나님이 되어 영생을 쟁취하는 것이다. 진정한 고생은 자유율법의 실천이요, 실천을 해야 변화를 입고 변화를 가져와 진정한 나,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말 바꾸기

'깨끗이'와 '깨끗히' 구별하기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동시에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다음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으니 잘 보고 숙지하기 바란다.

1. '이'로만 나는 것

예)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번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예)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죽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동시에 나는 것

예) <순우리말> 가만히(0)/가만이(X), 고요히(0)/고요이(X), 꼼꼼히(0)/꼼곰이(X), 나른히(0)/나른이(X), 답답히(0)/답답이(X), 섭섭히(0)/섭섭이(X), 쓸쓸히(0)/쓸쓸이(X), 조용히(0)/조용이(X)

<한자말> 각별히(0)/각별이(X), 간편히(0)/간편이(X), 공평히(0)/공평이(X), 과감히(0)/과감이(X), 능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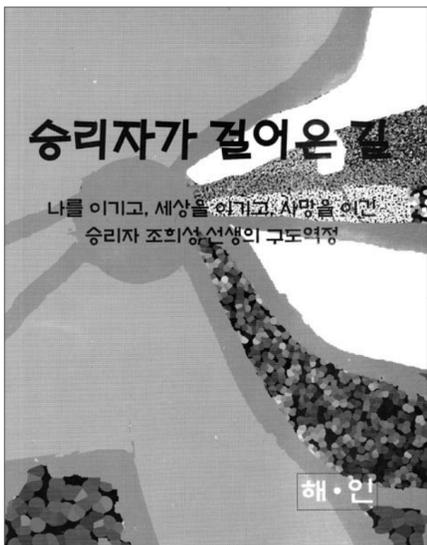
(0)/능이(X), 당당히(0)/당당이(X), 도저히(0)/도저이(X), 분명히(0)/분명이(X), 상당히(0)/상당이(X), 소홀히(0)/소홀이(X), 솔직히(0)/솔직이(X), 삼히(0)/삼이(X), 열심히(0)/열심히(X), 정결히(0)/정결이(X)

여기서 3번의 경우에 구별하기가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하다'를 붙여 말이 되면 '히'를 쓴다. 예) 말끔히: '말끔하다'로 말이 되기 때문에 '말끔히'가 맞다. / 꾸준히: '꾸준하다'로 말이 되므로 '꾸준히'가 맞다. / 꼼꼼히: '꼼꼼하다'는 말이 안 되므로 '꼼곰이'가 맞다.

예외가 있는데, 바로 '깨끗이'와 '열심히'이다. 즉, '깨끗하다'가 말이 되지만 '히'를 쓰지 않는다. 어간 '깨끗-'의 마지막 자음이 'ㅅ'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심히'가 말이 안되지만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가 맞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나라 맞춤법은 어렵다. 기본적인 법칙만 기억하고 예외의 경우는 외워두는 것이 좋겠다.*

이승우 기자

신간 안내



정가: 2,000원

승리자가 걸어온 길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걸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시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